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도메인 전반을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올라운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단순히 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전 과정을 End to End로 이끌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부터 운영까지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뛰어난 동료들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PWC는 회계와 감사를 넘어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Digital Innovation Lab은 기술 개발과 컨설팅이 결합된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중심의 경험과 도메인 이해를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성장 가능성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제 기준에 잘 부합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LG CNS에서 R&D PLM 시스템을 개발하며 Spring 기반 백엔드, Oracle DB 설계, JSP와 React를 활용한 프론트엔드 구현, OCR을 활용한 RPA 솔루션 개발까지 다양한 기술을 실무에 적용해왔습니다. 또한 하나의 모듈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요구사항 분석, 화면 설계, DB 모델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시야를 넓혀왔습니다.

이처럼 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메인 전체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전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에게, PWC는 성장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모두 갖춘 이상적인 조직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PWC의 Digital Innovation Lab의 일원으로서 개발과 컨설팅 역량을 함께 키우며 올라운더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LG CNS에서 R&D 시스템을 개발하며 실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Spring 기반의 BE 개발과 Oracle DB 설계는 물론, JSP와 React를 활용한 FE, 사내 프레임워크 개선, OCR을 활용한 자동화 솔루션 개발까지 수행하며 웹 전반에 대한 기술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능 구현을 넘어, 사용자 관점에서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하며 일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준정보 관리(MDM) 모듈을 책임지며 요구사항 분석부터 화면 설계, DB 모델링, 개발, 테스트, 운영까지 프로젝트 전 단계를 경험해본 것은 개발자로서 깊이를 쌓는 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쌓은 웹개발 기초와 알고리즘 역량, 군 복무 시절 경험한 보안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등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발자이자 모듈 담당자로서 역량을 인정받아, LG생활건강 PLM 구축 프로젝트에서 CFO 감사장을 수령했고, 2025년 사내 우수 인재 프로그램인 Fast-Track에도 선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개발자로서 AI, 솔루션 등 다양한 영역의 개발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기획과 운영,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올라운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PWC의 업무 방식과 도메인에 익숙해지며 실전 개발 경험을 넓히고, 3~5년차에는 기술적 깊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개발자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후에는 프로젝트 리딩과 컨설팅 역량까지 겸비해,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로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PWC는 그 과정에서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